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개장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주력

165면 주차장·휴게시설 조성... 전통시장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주군은 26일 반딧불시장 주차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은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조성한 것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1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완공한 주차장 건물(연면적 4,212㎡ 규모)은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일반 162면, 장애인 3편 등 총 165면의 주차장을 비롯해 공공라운지와 수유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차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무주군청이 직접 운영(~4. 30. 무료 개방)한다. 5월 1일부터는 시장 활성화와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시간까지는 무료, 이후 30분부터는 1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된다.

결과는 무인정산기(카드결제 전용)를 활용할 예정으로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콜센터(무인정산기 콜 버튼 클릭)를 운영한다. 야간에는 주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26일 진행된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무주군은 26일 반딧불시장 주차장 개장식을 가졌다.

개장식에서 황인홍 군수는 "주차장 조성은 계기로 반딧불시장이 되살아나고 나아가 시장을 연계한 무주관광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도를 높인 만큼 거주 편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반딧불시장 ব্যবসী 상인회장, 그리고 시장관계자 등 주민 1백여 명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과 기념 촬영 등 행사를 마친 뒤 주차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무주반딧불시장 ব্যবসী 상인회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와 주차장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로, 또 (위원장인) 신연상 대표가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무주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최낙훈 주무관(시설 7급)은 지역개발 업무 담당자로서 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을 통해 무주발전을 주도해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 등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반딧불시장이 주차장 복합시설로 인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며 "팔도명물 시장이 될 거라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주력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 공모 추진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소재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공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부자가 공감하고, 주민이 원하는 '무주군 고향사랑기금사업 및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4월 11일까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무주군 고향사랑기금사업 및 지정기부사업' 공모 참여는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 확인 후 이메일(ja82@korea.kr) 또는 우편·방문(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으로 진행하면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무주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우수 1명에게는 20만 원, 장려 2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성희 과장은 "기금사업 공모와 더불어 군청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일반기금사업도 함께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기부자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



인 지정 기부사업이 추진되고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주민 복지향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 상한액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확대돼 활성화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 방지 나서

무주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설천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 방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방제지 반경 2km 이내에 예방나무주사 사업(20ha)을 시행 중이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내용과 예방법, 확산 방지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 소나무류(직경 2m 이상인 소나무, 잣나무 등) 무단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과 감염 소나무 빨감 사용 금지, 감염 의심목 발견 신고(1588-3249)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실천을 돕고 있다.

무주군 지역 내에서 소나무 이동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일대 2km로 이 지역 내에서는 소나무 이동을 할 수 없으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 농가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절차를 거쳐 이동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중점사업 보고회 개최

국·소별 중점관리사업 총 84건 대응 방안 마련 논의

진안군은 26일 부군수실에서 주영환 진안부군수를 비롯해 국·소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중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에서 발굴한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2026년에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에 대한 국·소별 중점관리사업 선정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군 추진 신규사업 46건을 포함해 총 84건의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나누며 공략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했다.

보고된 주요 사업은 군 시행사업에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12억원)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82억원) △월평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170억원) △양평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140억원) 등이며, 국가 시행사업으로는 △지리산 산림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단지 조성(2,627억원) △국도26호선 도로개량사

업(608억원) 등이다.

군은 국·소별 중점사업에 대해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영환 부군수는 "군의 장기적 비전과 중점 분야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황에 대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우량 천마종균 공급 최선

무주군이 4월 중 천마종균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무주농업기술센터 내 천마종균배양센터에서 생산 중으로, 올해는 111농가에 총 10만 병(1병당 1천cc)을 공급할 예정이다.

천마종균 가격도 시중보다 3배 정도 저렴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유진광 팀장은 "천마는 참나 무원목과 천마종균, 자마, 토질, 기후

적 조건 등이 맞아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천마종균을 보급부터가 천마농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깨끗한 환경에서 정성을 쏟으며 우량종균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농가 소득 증대와 무주천마 명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상반기 먹거리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는 주영환 위원장(부군수), 진안군의회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 등 먹거리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진안군 먹거리정책(푸드플랜) 현황 및 성과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계획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2027년 1월까지 2년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영환 부군수는 "푸드플랜은 진안군과 지역농민, 그리고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이라며 "우리군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 중소농의 소득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특이민원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25일 군청 민원실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악성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악성 민원인으로 부터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 청원경찰,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폭언·폭행, 시설물 파손, 위협 행위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실전처럼 재현하며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산서보건지소 및 산서면 소재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지역 내 약국 분포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사회 분회,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의 협의와 해당 약국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 내 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